

환경과 공해연구회(한춘수 기사)

#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운동 계속

■ 최근 자연환경(생태계)의 훼손에 대한 환경단체나 국민들의 저항이 대단합니다. 생태계의 훼손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과 이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 '자연이 없으면 사람도 없다' 이런 말을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자연이 훼손된다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이 없어진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은 자연 그대로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무가 없으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없다는 것은 어린아이도 아는 상식이겠지요. 그것처럼 자연이 없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환경도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사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동식물이 어울려서 살아간다는 거죠.

환경단체가 동강을 살리고 새만금 간척사업을 반대하는 이유가 인간만이 잘 살아보자는 것이 아니듯이 자연환경의 훼손은 인간에게 숨쉬는 공간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피해가 아닌가요? 그렇기에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 거지요. 자연을 보호하고 사랑해야 하는 건 어린 시절부터 귀 아프게 들었던 소리일텐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저보다도 시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 전문성 갖춘 환경운동 위해 출범

■ '환경과 공해연구회'가 출범된 경위와 동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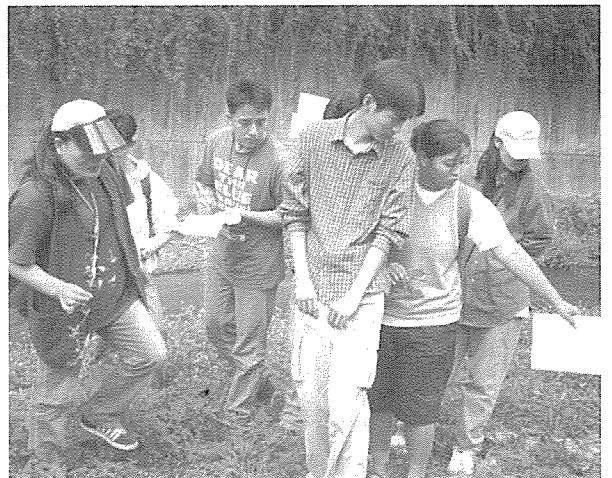
▶ 온산병과 상봉동 진폐증 사건 등 공해피해지역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환경운동이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와 활동가의 공감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환경과 공해연구회는 출범 당시 모습 환경운동의 전문성 확보와 함께 전문적인 환경문제를 대중화하는 문제

를 함께 고민해 왔습니다. 많은 환경단체가 그렇듯이 환경과 공해연구회 역시 주민들 입장에서 문제의식을 지적하고 주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을 쉽게 설명해서 그들이 피해의식을 바로 알게 하는데 있습니다.

■ 그 동안은 주로 환경오염에 관한 연구 활동에 많은 역량을 쏟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 공해연구회'의 구체적인 사업목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환경과 공해연구회에서는 4가지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연구활동으로 환경오염의 실태파악과 원인규명과 오염피해의 예방 및 해결, 대책에 관한 연구와 본회 부설로 환경과 공해연구소를 두어 환경과 관련해 과학적인 연구 조사, 정책 개발실시를 하고 있으며 두번째로는 정보제공으로 환경오염과 관련된 국내외의 전문적인 연구결과를 정리 및 종합, 평가하고 그 내용을 자료로 제작, 홍보하고 있으며 세번째로 연대활동을 하고 있는데



환경과 공해연구회 회원들이 실개천 주변의 생태계를 살피고 있다

**‘환경과 공해 연구회’는 온산병과 상봉동 진폐증 사건 등 공해피해지역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운동이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와 운동가의 공감대에서 출범하게 되었다.**

**이연구회는 지난 97년부터 다른 단체와 연대하여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을 요구하면서 계속 투쟁을 벌이고 있고 김포 매립지와 인천 신공항 등 건설에 따른 환경피해 실태를 조사하여 대책을 세우는 사업 등을 계속할 계획이다.**



정부가 진행중인 시화호 건설 반대운동을 인사동에서 전개하고 있는 회원들

환경단체 및 주민운동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오염피해주민 및 관련단체의 환경운동에 필요한 과학지식 및 연구자료, 정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환경교육에 힘쓰고 있는데 환경운동가와 일반인에 대한 환경교육으로 환경의식을 고취시키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 **환경운동도 다른 분야의 시민운동처럼 사안에 따라 지역 이기주의나 정부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행정 편의주의 등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환경운동을 하시면서 느끼는 어려운 점은 ?**

▶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 우선 반대하는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것을 보면 가장 힘이 듭니다. 가끔은 자신의 전부를 던져서 그것들을 저지하는 분들을 만나는데 그런 분들의 수고가 헛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환경단체들이 무슨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대안 없는 반대만 하느냐?”는 분들이 계신데 환경단체들 역시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반대할 만하니깐 반대를 하는 거지요. 요

즘 새만금 간척사업과 같은 경우가 바로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반대를 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중요한 건 그 곳에 삶의 터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안 사람들이 새만금 간척사업을 반대하는데 그들의 소리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들은 갯벌이 삶의 터전이고 인생입니다. 그 곳에서 잡는 모든 것들로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삶의 터전을 빼앗아서 안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삶의 터전이 있듯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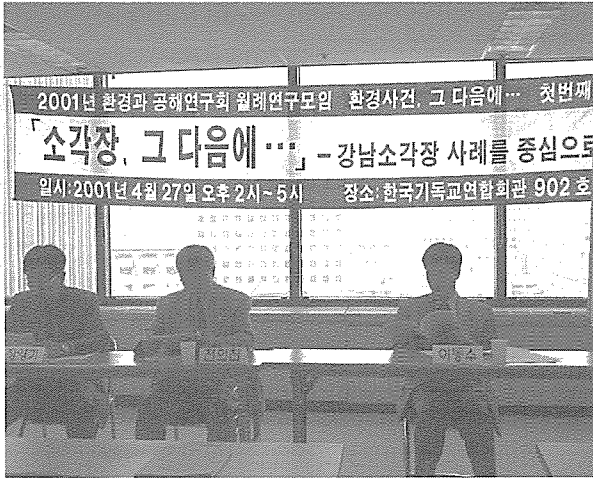
### 정부청사앞서 릴레이 단식 투쟁

■ **그간 ‘환경과 공해연구회’의 활동 중 기억할 만한 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새만금 간척사업은 수질 악화로 담수호가 포기된 시화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새만금호의 수질 악화가 예견되고 간척사업 자체가 경제성이 없는데도 막대한 국가예산을 투입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경과 공해



서울시가 후원한 ‘2000년 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인 ‘실개천생태탐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



환경과 공해연구회가 '소각장, 그 다음에...'를 주제로 2001년 월례모임 '환경사건 그 다음에...' 첫번째 모임을 갖고 있다

연구회에서는 이런 이유로 지난 97년부터 다른 환경단체와 연대하여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을 요구해 왔고 지금은 시민단체와 종교계가 새만금 갯벌을 지켜내기 위해 발족한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공해연구회는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 단식농성, 농림부의 '새만금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대한 반박자료 '새만금사업 계속해야 하는 사연, 중단해야 하는 이유'를 작성·배포하였다. 4월 22일 지구의 날에는 새만금해창갯벌농성을 지지하는 시민의 서명을 받아 현장에서 활동하는 종교·지역단체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발전을 위해 새만금 간척사업이 필요하다는 전라북도와 그 동안 투입된 1조1천3백85억원의 공사비와 농지부족을 이유로 사업 계속을 주장하는 농림부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환경·생태계 파괴가 예견되지만 정치적 이유로 진행되는 이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와 같이 할 앞으로의 우리 활동을 기대해 주시죠.

■ 역시 환경보호는 국민들이 얼마나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고 스스로 환경보호에 나서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환경운동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 에너지 사용과 소비를 줄이고 쓰레기 감량, 재사용, 재활용 등과 같은 개인의 실천은 기본적이며 무엇보다도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환경친화적인 지역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좋은 방법중의 하나는 '지역의제21'의 작성과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환경현황과 친환경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주민, 자치단체, 기업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며 친환경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상을 구상한 '지역의제21'을 작성해놓았습니다. 이를 활용해 지역의 환경문제가 무엇인지, 지역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졌는지 혹은 이루어질 것인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친환경적인 지역을 구성하기 위한 계획이 적절한지, 이 과정에 지역주민이 얼마만큼 참여되었는지를 관심있게 살펴보고 이후 '지역의제21'의 실천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만일 '지역의제21'이 작성되지 않았다면 지자체에 이의 작성을 요구하고 이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인천신공항 피해사례 등 조사

■ '환경과 공해연구회'의 21세기 사업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 2001년 환경과 공해연구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계획을 구상중입니다. 새만금사업 등 간척사업의 환경피해를 예측하기 위해 시화호 주변의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시화호·새만금 등 대규모 국토파괴가 반복되는 원인을 찾아 그 해법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산반월공단에서 다이옥신이 매우 높은 농도로 검출되는 원인을 알아보고 그 대책을 찾아 볼 계획이며, 85년 온산병으로 주민이 집단 이주하게까지 된 온산의 오늘의 환경을 진단하고 공단 지역의 환경문제와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최고의 위생매립지라는 김포매립지 인근지역에서 발생한 주민과 가축의 건강피해에 대한 연구결과와 정리와 대책 마련, 빈번한 안개발생과 공항지반의 부등침하 등 공항의 안전성 문제, 철새 도래지의 파괴, 환경문제에 올바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건설된 인천 신공항의 현재를 진단하는 사업 등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⑤7

송해영 <본지 4월 기자>